

## 인도정부 단일브랜드 소매업 전면 개방 발표

- 2012년 1월 10일 인도정부는 단일브랜드 소매업 분야 전면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 가동에 들어감.
  - 2006년 2월 이후 51%까지 허용되어 왔던 단일브랜드 소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100%로 전면 확대됨.
  - 단, 외국인지분소유가 51% 이상일 경우 적어도 30%를 현지 중소기업체에서 소싱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시행될 예정임.
- 인도정부의 소매유통업 개방은 지난 수 년간 지연되어왔던 경제개혁 조치안 중 하나로서 최근 경제성장 둔화<sup>1)</sup> 등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소매유통시장 개방 압력도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열악한 소매유통구조의 개선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소매유통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시사해왔음.
  -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2010년 인도 순방시 소매 및 보험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 철폐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에 인도를 방문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소매분야 개방을 촉구한 바 있음.
- 금번 조치는 인도 소매시장 전면개방으로 가는 점진적 단계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바, 인도 소매유통시장의 방대한 잠재력<sup>2)</sup>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와 기업은 향후 인도 소매유통시장 동향에 주시하여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는 단일브랜드 전면 개방과 함께 그 동안 FDI가 금지되어 있던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 FDI 51% 허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등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합작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진출해있으며, 이번 단일브랜드 소매업 전면개방으로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의 외국기업이 현지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한국기업으로는 CJ 홈쇼핑이 인도 Star Group과 합작으로 진출해 있음.

1)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10년 약 9%에서 2011년 7%대로 하락함. 유엔은 2012년 인도 GDP 성장률을 7.7%, 세계은행은 6.5%로 전망하였음.

2) 높은 경제성장률, 중산층 증가, 조직화된(organized) 소매업 인프라구조의 신속한 구축 등에 힘입어 인도 소매업 연 매출액은 2011년 약 4천 2백억 달러(한국의 약2배)에서 2015년에는 약 8천 3백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Q112 BMI India Retail Report).

〈출처: *Economic Times, Hindustan Times, Q112 BMI India Retail Report* 등〉  
(정혜원 연구원)